



행복한 에너지기술!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모든 것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의 점은, 우리의 의지이자 신념이고 인류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점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 면을 그리고, 면을 채운 인고의 시간이 모여 우리만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금까지의 도전이 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내일을 그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기술을 향한 도전,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사람, 환경, 기술 그리고 사람 **Engineering for Human**  **한국전력기술**



Family

2 0 1 8 1 2



www.kepco-enc.com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04 **Focus** | 하나대체투자신탁자산운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MOU 체결 외

08 **청백리** | 노사공동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외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6 **일하며 즐기며** | 제20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배 유관기관 야구대회 '공동 3위'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22 **新성장지도** | 600년의 역사와 만나는 서울성곽 길 밟기

28 **Storytelling** | 친지들의 모임, 참석자들은 잔을 돌리려다 꾸중을 듣고, 노비들은 술에 물을 탔다 곤장을 맞다

30 **기자칼럼** | 디지털 경제시대의 잡노마드

32 **건강 100세** | 가을철 운동마니아 '어깨질환 주의보' ... 오십견·회전근개파열 환자 증가

34 **생활과 과학** | 인천 송도 IPCC 총회, 지구 기온 상승 1.5도로 억제하자

36 **Culture** | Festival, Exhibition, Book, Movie

38 **KEPCO E&C NEWS** | 2018년도 제8차 이사회 개최 외

40 **한기표의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42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44 **인포메이션** | 전동킥보드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은 전 제품 문제없어

46 **Poem** | 작은 위로

47 **에코포토** | 12월입니다



하나대체투자신탁 자산운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MOU 체결

회사는 하나대체투자신탁자산운용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을 지난 10월 19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배수 사장과 하나대체투자신탁자산운용 차문현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우리 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시공 역량과 하나대체투자신탁자산운용의 금융조달 수행능력을 융합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체결되었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정보 교류 및 기술협력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회사는 이번 MOU 체결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BIXPO 2018 국제발명특허대전 그룹사 부문 대상 수상

우리 회사가 BIXPO 2018 국제발명특허대전에 출품한 내장형 제어봉구동장치가 지난 11월 2일 그룹사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원자로설계개발단 기계설계그룹이 출품한 내장형 제어봉구동장치는 소형모듈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개발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로 제어봉 이탈사고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원자로헤드 관통관을 최소화 하는 기술이다.

내장형 제어봉구동장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개발에 성공한 사례는 몇 안 되는 기술이다. 이번 기술개발로 독보적인 원자로 핵심기술과 해외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BIXPO 2018 국제발명특허대전에는 총 164개 발명품이 선정되어 전시 되었으며, 시상은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리 회사는 발전자회사,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이 경쟁하는 그룹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전력그룹사 이전지역 농수축산물 박람회

- 김천시 사회적 경제조직과 함께
상생협력의 장 마련



전력그룹사 이전지역 농수축산물 박람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11월 5일부터 3일간 열렸다.

우리 회사와 한전을 비롯한 11개 전력그룹사가 협업하여 진행한 이번 행사는 각 이전 지

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박람회에는 10개 김천소재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이 참여하여 샤인머스켓, 호두 등의 농산물과 우리밀쿠키, 찰보리떡 등 다양한 지역 상품을 판매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자리 제공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각 지역의 대표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배수 사장은 “전력그룹사가 한 뜻을 모아 각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과 상생협력모델 구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공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버팀목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사랑의 헌혈행사로 나눔문화 실천



회사는 11월 14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공동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와 생명 존중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자발적인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133명의 직원이 헌혈에 참여했다. 회사는 2004년부터 헌혈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누적 헌혈참여자 수는 1,800여명이며, 직원들의 헌혈증서를 기부 받아 직원가족 및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기증하고 있다.

엄호섭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헌혈행사가 임직원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행사 실시와 캠페인 시행 등을 통하여 혈액수급 부족 문제 해소 및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설 방침이다.





노사공동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 인권존중 경영 실천 및 인권침해 예방 다짐 —



회사는 11월 1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김천 본사에서 '한국전력기술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배수 사장과 이동근 상임감사, 이해익 노조사무국장, 주요 직위자 등이 참석해 인간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다짐했다. 노사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선포식은 혁신성장전략실장의 인권경영 추진경과 및 계획보고, CEO의 인권경영 선언, 직원대표 인권경영 현장 낭독, 참석자 인권경영 실천 서약, 인권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배수 사장은 “최근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 회사 임직원 모두가 인권관련 규정

과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존중을 실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중심의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을 비롯한 회사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 효과 정착 확인

— 임직원·협력사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의 85% 긍정적 평가 —



회사는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임직원 및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기업 관계자들의 인식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 회사 및 협력회사 임직원 1,928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과 대면조사, E-mail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답했으며, 해외근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6%는 우리나라가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로 외국인을 상대할 때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협력회사 CEO의 96%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변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질문화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조사를 주관한 이동근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가 상당부분 나타난 것을 확인한 만큼, 대외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실질적 효과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회사는 청탁금지법 준수와 더불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2016.09.28.) 맞이
국민 체감도 변화 설문조사(한국전력기술) 결과 보고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기업 관계자들의 인식도에 미친 영향



1. 설문배경

- ▶ 청탁금지법 2주년(16.09.28시행)을 맞아 우리 사회 변화된 모습 파악
- ▶ 청탁금지법 시행의 중심에 있던 공직자(공직유관기관)의 체감도 평가
- ▶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유관기관 관계자(임직원, 협력회사 CEO/실무진, 해외근무자)들의 인식도에 미친 영향 파악



2. 설문명칭 :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기업 관계자들의 인식도에 미친 영향

3. 조사주관 : 한국전력기술 청렴감사팀/윤리문화팀 공동 수행

4. 설문방식 :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 대면조사, E-Mail 조사 병행

- ▶ 한국전력기술 : 임직원 전수조사(인트라넷 설문조사 시스템 활용)
- ▶ 협력회사 CEO : 2018년 동반성장 CEO 아카데미 참석자 전수조사
- ▶ 협력회사 실무진 : 협력회사 등록업체 E-Mail 전수조사



5. 설문표본 : 한국전력기술 전체 임직원 및 협력회사 CEO/실무자

- ▶ 한국전력기술 : 2,266명(해외현장/사무소 근무자 60명 포함)
- ▶ 협력회사 : 240명(CEO 40명, 실무진 200명)



6. 표본별 응답률 : 전체 2,506명 중 1,928명 응답(76.93%)

소 속	구 분	전체표본	응답자수	응답율
한국전력기술	전체 임직원	2,266명	1,748명	77%
	해외근무자는 전체 60명 중 55명 응답(92%)			
협력업체 등록기업	CEO	40명	23명	58%
	실무진	200명	157명	79%



7. 설문내용

- ▶ 설문응답자 구분 : 성별, 임직원, 협력회사, 해외근무 여부
- ▶ 청탁금지법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의견
- ▶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행도 여부
- ▶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체감도
-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달라진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제고 여부
- ▶ 외국인 상대시 청탁금지법 시행을 외국인이 있거나 알려 준 적이 있는지 여부*
- ▶ 외국인 상대시 청탁금지법 시행 국가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는지의 여부*

* 항목은 해외 현장/사무소 근무 경험자만 답변



8. 설문내용 분석

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

- ▶ 전체 응답자의 85%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함
- ▶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은 0.1%에 불과하여 이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Trend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음
- ▶ 특히 한국전력기술 협력회사 CEO들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우리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답변이 96%에 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을문화의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 연령/직급별로는 40대 초반까지의 사원 대리 과장급(77%)보다는 40대 중반 이후 차장 부장 부서장급(90%)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보여 주고 있음

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 ▶ 전체 응답자의 96%가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제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서 정착되고 있다고 보여짐(매우 잘 지켜짐 66%, 보통 30%, 전혀 지켜지지 않음 1%, 무응답 3%)
- ▶ 다만, 공공기관 임직원과 협력회사 CEO들의 긍정적 응답에도 불구하고 협력회사 실무진에서는 매우 잘 지켜진다는 의견이 46%에 불과함으로써 협력회사 실무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 연령/직급별로는 40대 초반까지의 사원 대리 과장급(93%)보다는 40대 중반 이후 차장 부장 부서장급(97%)에서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을 보여 주고 있음

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이 사라졌다고 보는지에 대한 내용

- ▶ 전체 응답자의 82%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응답(거의 사라짐 70%, 보통 12%)하고 있음
- ▶ 그러나 30대 이하에서는 65%만이,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도 64%만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응답함으로써 최근의 채용비리에 따른 젊은층의 우려나 여성들의 직장문화나 보육분야에서는 일부 미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됨

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졌는가요에 대한 내용

- ▶ 전체 응답자의 77%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졌다고 응답(매우 자랑스럽다 50%, 자랑스럽다 27%)하고 있음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자긍심도 높이는 효과가 부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 특히 국내보다 해외 근무(또는 경험)자들의 응답률은 86%, 협력회사 CEO들은 91%에 달하는 매우 높은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줌으로써 청탁금지법 시행이 해외근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한편 협력회사 경영을 개선하고 있음에 따른 응답으로 사료됨

- ▶ 다만 협력회사 실무자들의 긍정적인 응답은 69%(매우 자랑스럽다 31%, 자랑스럽다 38%)에 불과하여 아직도 공공기관에 잔존할 수 있는 부정청탁 사례를 발본색원하려는 노력도 요청됨
- ▶ 이는 우리가 간과하여 왔던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반부패 청렴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한편 국가적 자존감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됨

마. 귀하가 상대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이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상대 외국인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

- ▶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외국인과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의 70.7%는 상대 외국인이 우리나라가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시행 내용을 알려 주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우리 국민 85%에는 부족한 인식도를 보여 주고 있음
- ▶ 그러나 협력회사 실무진의 경우에는 43%만이 우리나라가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음. 이는 상대 외국인이 관리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지만 현장 실무 외국인들에게까지는 전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해외 실무 외국인들에게도 그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 ▶ 또한 한국전력기술 남녀 관계자가 체감하는 청탁금지법 인식도는 남성(72%) 관계자가 여성(58%) 관계자들보다 높다는 응답이었음

바. 우리나라에서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들이 외국인 담당자를 상대할 때 우리나라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게 하여 주는지에 대한 내용

- ▶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외국인 담당자와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의 76%가 우리나라에서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외국인 담당자와 상대할 때 자긍감이 높아졌다고 응답을 하고 있음
- ▶ 특히 협력회사 CEO(100%)를 포함한 전체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들이 우리나라가 청탁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 ▶ 이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국내적으로 청렴문화가 뿌리 내려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외적으로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외국인 담당자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외국인들과 상대할 때 청탁금지법의 시행이라는 사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도 높여 준다는 사실로 귀결됨 **E&C**





“고객님 앞으로 나이 한 살이 배송중입니다.

어찌지요. 원치 않으니 반쯤처리 해 주세요.

고객님, 교환 환불 취소가 안 되는 상품입니다.

그럼 가는 길에 버려 주세요”

몇 해 전에 유행한 송년 문자입니다.

2018이라는 숫자가 익숙한가 싶더니

어느새 또 다른 숫자가 낯설게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는 긴 것만 같은데

일주일이 금방이고 그렇게 쌓인 한 주 한 주가

한 달을 채우는 것 또한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거래 은행에서 새 달력을 받아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 보자니 새 옷을 갈아입듯 설렙니다.

바쁘게 살다보면 놓치고 지나가는, 난감한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엔 빨간색 동그라미를 미리 쳐 둡니다.

잊지 않고 꼭 챙기겠다는 다짐입니다.

명나라 시인 진계유의 ‘뒤에야’라는 시에는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대자연도 무수한 잎들을 대지에 돌려주고 명상에 들었습니다.

다급하게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각박한 날들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은 이 없었는지

행여 나 때문에 힘든 사람 없었는지 성찰의 시간입니다.

남은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0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배 유관기관 야구대회

한국전력기술 야구회(이하 코펙파워스)가 제20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배 야구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배 야구대회는 1992년 11개 기관의 참가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간 유대강화 및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20회 야구대회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공주시 및 세종시에 위치한 야구장에서 개최되었으며, 14개팀이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회사 코펙파워스는 꾸준히 산업통상자원부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준우승을 포함하여 역대 5번의 준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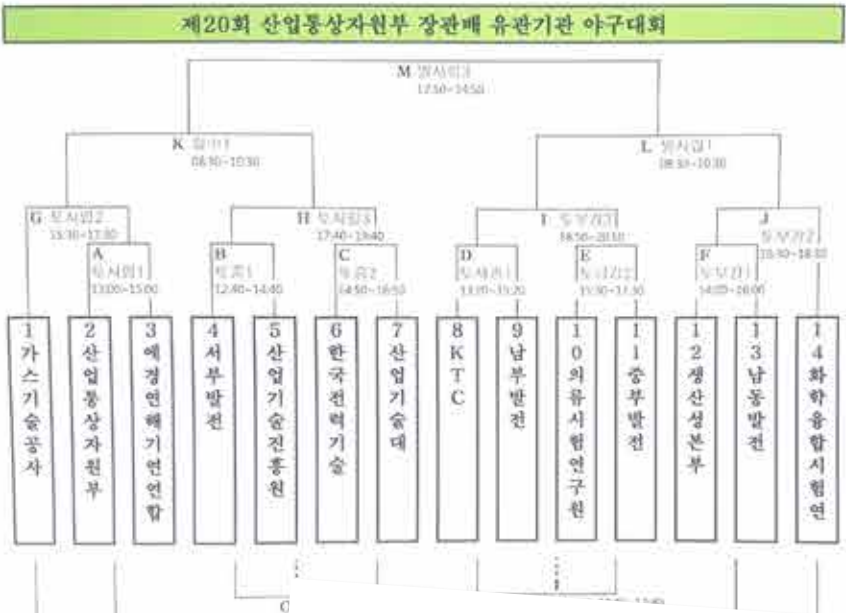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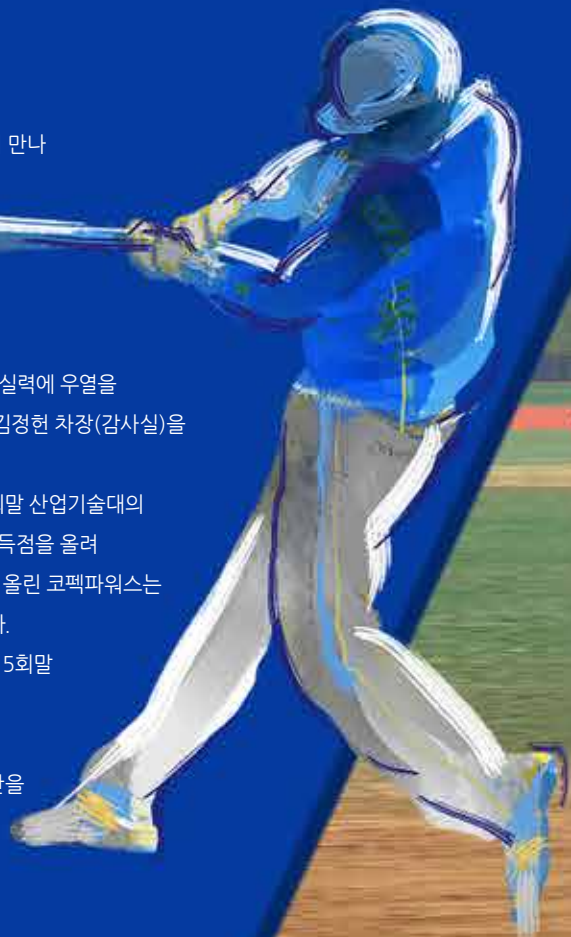
9월 15일(토) 11시, 대회 개막식 - 박찬호야구장

14개 참가기관 선수 및 가족, 옹호섭 경영관리본부장을 비롯한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거행되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선수단 선서를 시작으로 개막식이 진행되었으며, 각 기관 선수들은 1년여 만에 다시 만나 서로 우애를 다지고 대회의 선전을 다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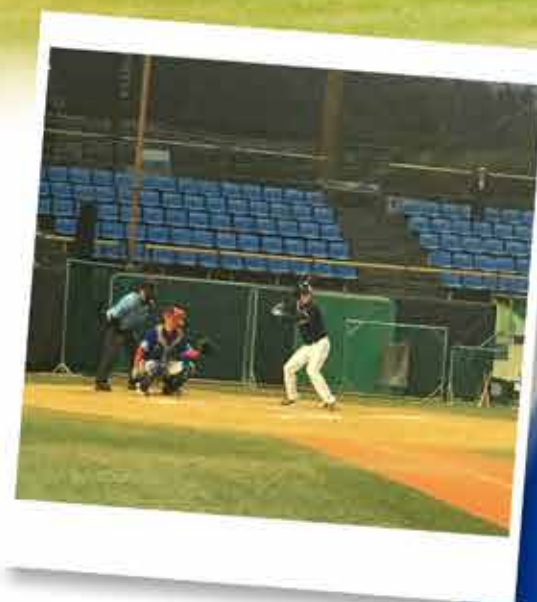
9월 15일(토) 14시 50분, 공주중학교, 1회전(vs 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대와의 1회전 경기는 최근 3년간 2번이나 만날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팀과의 경기였다. 특히 지난해 4강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2016년 대회에서는 1회전에서 패배했을 정도로 서로의 실력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대였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작된 경기에서 코펙파워스는 올해 감독으로 선임된 김정현 차장(감사실)을 선발로 내세웠고 최상의 전력을 구성하여 경기에 임하였다. 1회초 김기수 차장(안전성평가기술그룹)의 우측간 2루타를 시작으로 먼저 선취점을 올린 코펙파워스는, 2회말 산업기술대의 저력에 1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하였으나, 3회초 조혁수 과장(유체계통설계그룹)의 좌측간 2루타가 터지며 3득점을 올려 점수 차이를 벌려 나갔다. 3회말 선발투수 김정현 차장이 삼진 2개를 포함하여 삼자범퇴 무실점으로 기세를 올린 코펙파워스는 4회초 김종섭 과장(재료기술그룹)과 조진호 과장(원자력사업처)의 연속 안타가 터지며 추가 3득점을 올렸다. 하지만 4회말부터 산업기술대의 저력이 나타나 연속 안타가 터지며 추격을 허용하였으나, 시간 제한에 따른 5회말 마지막 이닝에서 이준 부장(기계기술그룹)을 마무리로 투입하여 어려웠던 1회전을 11대 8로 승리하였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끝까지 경기를 관전하며 응원을 보내주신 옹호섭 경영관리본부장은 경기 종료 후 선수단을 격려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03																
TEAM	1	2	3	4	5	6	7	8	9	10	11	12	R	H	E	B
●한진기술	0	3	1	3	2	0							9	5	4	90
서부발전	3	0	1	0	4								8	6	8	80



9월 15일(토) 17시 40분, 박찬호야구장, 8강전(vs 서부발전)

첫 경기를 어렵게 승리한 코팩파워스는 30분간의 짧은 휴식밖에 취하지 못하고 8강전에 임하였다.

상대팀 서부발전은 올해 처음 참가한 팀이었으나,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포수와 1회전에서 13점을 올린 강력한 타선을 보유한 팀이었다. 상대팀은 2시간이 넘는 휴식을 취한 반면 코팩파워스는 제대로 된 휴식 없이 경기에 나서서인지 1회 무득점으로 시작한 반면, 서부발전은 3득점을 올려 기선을 제압당했다.

하지만 2회초 이웅 대리(계측제어기술그룹), 김성구 경비소장(사육관리실)의 출루를 시작으로, 광영신 과장(기계기술그룹)의 적시타 등을 묶어 동점을 만들었다. 3회까지 4대4로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던 코팩파워스는 5회초 2사 만루에서 김기수 차장의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렸으나, 마지막 5회말 상대의 거센 추격을 받았다.

코팩파워스가 9대8로 앞서고 있었지만 2사 만루의 끝내기 상황에서 상대 4번 타자를 상대한 마무리 투수 이준 부장은 비가 계속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상대 4번 타자를 3루수 플라이로 처리하며 팀의 4강 진출을 이끌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은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다음날 아침에 펼쳐질 4강전을 대비하여 서둘러 숙소로 향했다.

9월 16일(일) 8시 30분, 공주중학교, 4강전(vs 가스기술공사)

4강에서는 실업야구 선수출신을 보유한 전통의 강호 가스기술공사를 만났다.

이번 대회에서 가스기술공사는 대진추첨에서 부전승을 기록하여 전날 1경기만 치르고 올라왔고, 전날 코팩파워스는 8시가 넘어서 경기가 끝난 반면, 가스기술공사는 5시에 경기가 끝나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2년 연속 결승 진출을 목표로 경기에 임한 코팩파워스는 전날 내린 비 때문에 광상원 대리(인사노무처)와 조혁수 과장이 수비도 중 다이빙캐치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등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까지는 4대4로 팽팽한 경기를 펼쳐 나갔다.

3회초 2사 후에 광상원 대리의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한 코팩파워스였지만, 이재우 부장(품질안전환경처)의 잘 맞은 타구가 상대 수비 시프트에 막히며 더 이상 추가점을 올리지 못하였다. 이후 3회말 상대 실업야구 선수출신에게 홈런을 맞는 등 재역전을 허용한 코팩파워스는, 결국 4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야구대회 일정을 마감하였다.

(3, 4위전이 없는 대회규정상 코팩파워스는 남동발전과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감하였다.)

아쉽게도 2년 연속 결승진출에는 실패하였지만, 감독 김정현 차장이 3경기 11이닝 동안 200개 이상의 공을 던지며 15개의 삼진을 잡으며 호투(대회 탈삼진순위 1위)하는 등, 그동안 김천시 지역리그 등을 뛰면서 선수들의 기량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어 내년 대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뜻깊은 대회였다.

1박 2일 동안 악천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코팩파워스에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코팩파워스의 멈추지 않는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E&C

C ommunication

긴긴 겨울밤

고향집 장독대 위에는 하얀 눈 소리 없이 쌓이고

찬바람에 문풍지 서럽게 울던 날 밤

간간이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작은방 처마 밑에 걸어둔

마른시래기가 바스락거리는 밤이면

달은 왜 그리 멀리 걸려서 가슴을 시리게 만들던지.

그 시절

겨울밤의 친구는

오로지 지직거리는 라디오 하나뿐.

밤을 잊은 그대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

잠 못 이루는 그대에게,

음악과 사연들이 하나같이 그립고 안타깝고 감미롭고

아나운서 목소리는 어찌 그리 정겹던지.

작은 소리통에서 얻은 원대한 꿈들도

이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숨을 죽였다.

창문을 열고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반쪽달이 아파트 지붕에 걸려 있다.

찬바람이 폐부 깊숙이 파고든다.

사위는 고요하고 적막하고

머릿속은 별처럼 초롱초롱하다.

아마도 이 시간쯤 시인은 시를 쓰고

음악가는 곡을 만들고

철학자는 사색에 잠기고,

이럴 때 불후의 명작이 탄생하지 않을까.

겨울밤은 침 속에서도 약동이 있어 좋다.

600년의 역사와 만나는 서울성곽 길 밝기

서울은 500년 조선왕조의 수도로 긴 시간 동안 나라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 현대까지 합치면 무려 62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처럼 오랜 연륜을 지닌 고도(古都)이면서도, 옛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참 아쉬운 대목이다. 파란만장했던 근현대의 역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찰 탓이기도 하다.



02



03



04

2007년, 서울성곽 북악산 구간이 일반에게 개방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울성곽걷기 붐이 일고 있다. 터러는 무너지고 터러는 불타 없어졌으나 성곽을 따라 걷다보면 아직 남아있는 옛 도성의 온기를 느껴볼 수 있다. 특히 남산과 낙산, 북악산,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능선 성곽 길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과거와 근대, 현대가 어우러진 묘한 감흥으로 와닿는다.

서울성곽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서울에 도성이 만들어진 것은 조선이 건국한지 4년 후인 1396년부터이다. 1394년, 서울로 천도한 뒤 가장 먼저 지은 것은 궁궐과 종묘, 사직단이었다. 약 1년여 동안의 공사가 끝나고 도읍으로서의 터전이 마련되었고, 같은 해 윤9월에 도성건설을 위한 임시기구인 도성 축조도감이 설치되었다. 도성축조에 관한 계획은 정도전에게 세우도록 하였다. 이때 정도전과 무학대사의 의견이 엇갈려 인왕산 선바위를 서울 성곽 안으로 할 것인지 바깥쪽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대립이 이어졌다. 《조선불교통사》에 전해지는 일화에 의하면 양쪽의 주장이 너무 강하여 태조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어느 날 큰 눈이 내렸다. 이튿날 아침 한양의 안쪽은 눈이 녹은 반면에 바깥쪽은 여전히 녹지 않고 하얗게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눈 녹은 선을 따라 성곽의 선을 그었다고 한다. 그때 인왕산 선바위는 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서울 성곽바깥쪽으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서울 성곽은 북악산(342m), 낙산(125m), 남산(262m), 인왕산(338m)을 잇는 총 길이 59,500척(약 18.2km)이었다. 서울 성곽은 평지는 토성, 산지는 산성으로 축조하기로 계획 되었



05



06

는데, 이 방대하고 시급한 사업을 농한기에만 하기로 하고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396년 1~2월, 49일 동안 1차 공사가 진행되었다. 1차 공사에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등에서 11만8천 명이 동원되었다. 당시 한양의 인구가 대략 5만 명이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숫자가 참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때 축조한 도성은 낮고 평탄한 곳에는 토성, 험하고 높은 지역에는 석성을 쌓았는데 전체길이가 약 12,8km였다. 그러나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어 많은 무리가 뒤따랐다. 그해 여름에 장마가 오자 곳곳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2차 축성작업이 시작되었다. 2차 공사는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49일간 79,400 명이 동원되어 진행되었다. 1차에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완성하고 무너진 곳을 개축하였다. 이때 도성의 사대문과 사소문도 완성을 보았다. 2차 공사가 끝나고 비로소 도성과 성곽의 모습이 자리를 잡았다.

조선의 운명과 함께 흘러온 서울성곽

태조 때 축조된 도성은 골격이 유지된 채 조선 말기까지 이어지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수축이 여러 차례 거듭되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개축은 세종 때

와 숙종 때 있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태조 때 쌓은 성과 세종, 숙종 때 쌓은 성의 모습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태조 때의 것은 사방 1척 정도의 거칠게 다듬은 작을 돌을 불규칙하게 쌓아올려 조금 조잡한 편이다. 세종 때에는 2x3척의 긴 네모꼴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여 아랫부분은 비교적 큰 돌로, 윗부분은 작은 돌로 쌓았으며 성벽의 중앙부가 밖으로 약간 튀어나왔다. 숙종 때는 2x2척 정도의 정방형 돌을 이용해 쌓아올렸는데 간격도 일정하고 벽면도 수직에 가깝다. 시대가 흐르면서 발전되어가는 축성기술의 발달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종 이후 도성은 조선의 운명과 같이하여오다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99년 서울 시내에 전차노선을 깔면서 교통의 요지인 홍인문, 돈의문, 숭례문 주변의 도성을 헐고 도로를 만들었다. 이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도시계획이라는 미명하에 곳곳의 성벽들이 헐려나갔고, 해방 이후에는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파괴가 거듭되었다. 1975년부터 81년까지 복원가능한 부분에 대한 복원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원

01 성곽 너머로 보이는 서울도심 풍경 02 600여 년 동안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던 남대문. 2007년 화재로 인해 다시 지어졌다 03 남대문에서 남산 오르는 길의 성곽, 아랫부분은 거칠고 윗부분은 고르다. 축조연대에 따른 차이다 04 남산봉수대. 전국에서 벌어지는 위급한 상황들이 남산봉수대를 통해 도성 안으로 전달되었다 05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서울타워 06 낙산길의 성곽 풍경



07



08

07 낙산공원의 조형물 08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은 동쪽 관문이다 09 사소문 중 하나인 광희문 10 광희문과 이어지는 서울성곽 야경 11 남산 포토아일랜드 전망대의 서울야경

형의 절반 밖에 안 되는 9,790m에 불과하다. 2007년부터는 그동안 감춰져 왔던 북악산 구간이 개방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미 반 정도가 단절되고 허물어졌지만,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해 더 많은 부분이 복원될 여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도성은 현재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도 이루어진 상태다.

성곽에 올라 600년 서울의 역사와 만나다.

서울성곽 길은 크게 네 코스로 나누어 걷는 것이 좋다. 전체 코스는 19km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가능하겠지만, 구간별로 천천히 걸으며 서울의 지나간 시간과 현재의 시간들을 음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남산, 낙산, 북악산, 인왕산의 능선으로 길이 이어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서울풍경을 즐겨보는 것도 서울성곽 도보 여행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출발점은 승례문이 좋겠다. 2007년 2월, 화마로 인해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국보 제1호 승례문은 6년의 복원과정을 거쳐 재탄생했는데, 단일 건물로는 건국 이래 가장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승례문에서 남대문 시장을 지나 퇴계로를 건너면 SK빌딩 옆으로 성곽길이 이어진다. 이 성곽을 따라 오르면 백범광장을 거쳐 남산 정상까지 오르게 된다. 원래 이름이 목멱산인 남산은 두말할 나위 없는 서울의 관광명소로 볼거리가 많다. 정상에 남산N타워를 비롯해 곳곳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의 동서남북 풍경이 시원스레 펼쳐져 눈이 즐겁다. 봉수대를 지나 국립극장 쪽으로 내려오면 남소문 터



09



10

가 있다. 서울에는 사대문과 사소문이 만들어졌는데, 사대문은 승례문, 흥인지문, 돈의문, 숙정문이고 사소문은 홍화문, 광희문, 혜화문, 창의문이다. 남소문은 현재 표지석만 남아 있다. 두 번째 구간에 있는 광희문은 비교적 온전히 보전되어 있다. 특히 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다. 광희문과 흥인지문을 지나면 낙산으로 오르게 된다. 오르다 보면 아직도 70년대 풍광을 간직한 창신동, 이화동의 풍광이 정겹다. 이 옛 마을들은 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 멈춰진 풍경과 변해가는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다. 혜화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북악산 코스는 40년 동안 막혀 있다가 개방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감춰진 정원을 걷는 느낌이다. 북악산은 궁궐이 등지고 있는 서울의 주산이다. 군사지역이어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가야한다. 성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모습이 맞은편 남산에서 보는 풍경과는 또 다른 감흥을 준다. 네 번째 코스는 서울의 우백호라 할 수 있는 인왕산길이다. 창의문에서 시작되어 돈의문으로 이어지며 산정에서 보는 서울야경이 또한 볼만하다.

서울성곽 길 코스 안내

남산코스 / 승례문-남산-남소문터-장충동탐방로-장충체육관 (약 6km, 4시간)

낙산코스 / 장충체육관-광희문-흥인지문-낙산-혜화문 (약 5.5km, 3시간)

북악산코스 / 혜화문-와룡공원-숙정문-창의문 (약 5.5km, 3시간)

인왕산코스 / 창의문-인왕산-돈의문 터-정동길-승례문 (약 6km, 4시간) **E&C**



친지들의 모임, 참석자들은 잔을 돌리려나 꾸중을 듣고, 노비들은 술에 물을 탔다 곤장을 맞다

일기분류 : 생활일기

출 전 : 계암일록(溪巖日錄)

시 기 : 1607년 6월 23일(윤)~동일시기이야기소재

인 물 : 제천 표숙, 김령, 이기성, 정사신, 권문계, 이박, 권성, 권양손, 아랫것들

주 제 : 생활, 술에 물을 탄 노비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1607년 윤6월 23일, 아침에 참의(參議) 이기성(李器成)이 안부를 물어왔다. 제천 표숙을 문안하러 이 참의(李參議) 집으로 갔는데, 여러 사람이 번갈아 드나들어 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 이지 무리들과 같이 관아 동헌에 나아가니, 영공이 몸이 좋지 않아 손님을 사절 하다가 오랜 뒤에 나와 동헌방으로 가서 김령에게 말하기를, “사는 곳이 멀지 않아 군(君)을 자주 만나보게 되니 다행일세만, 뜻대로 안되어 한탄스럽네.”라고 하였다.

도사(都事) 정사신이 술을 가져와 따르고 판관도 들어와 참석했다. 권문계(權文啓), 송라(松羅)의 찰방 이박(李燭) 및 다른 사람들도 참여했다. 어제 영공의 친지들의 모임에 왔던 사람들도 모두 들어와 뵈었다. 좌수(座首) 권성(權誠)·품관(品官) 권양손(權良孫) 등도 정도사처럼 잔을 돌리려 하자 영공이 몹시 화를 내었고, 또 아랫것들이 술에다 물을 탔다가 곤장을 맞기도 했다.



◆ 조선시대 음주 습관 - 금주령

금주령은 조선시대 큰 가뭄이 들거나 흉작·기근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다. 이러한 기간에 근신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며 식량과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1392년 조선개국 직후 흉작으로 인하여 금주령을 내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대에 걸쳐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특히, 태종 때는 거의 매년 내려졌고, 성종과 연산군 때도 자주 행하여졌다.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인 금주령은 거의 없게 되었으나, 1758년(영조 34)에는 큰 흉작으로 궁중의 제사에도 술 대신 차를 쓰는 등 엄격한 금주령이 발표되었고, 왕이 홍화문(弘化門)에 나가 직접 백성들에게 금주윤음(禁酒綸音)을 발표하였다.

〈관련기사〉- 〈강원일보〉 [언종언] '수작(酬酌)문화'

조선시대에 가장 멋지게 술을 마신 인물로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문신 손순효(孫舜孝)가 꼽힌다. 명필가였던 그는 아무리 고주망태가 되어도 명나라에 보내는 국서를 완벽하게 써냈다. 임금이었던 성종은 음주가 지나쳐 하루 석 잔만 마시라고 은잔을 내려 보냈다. 대주가였던 그는 이 은술잔을 얇게 펴 최대한 늘려서 술을 실컷 마시며 호기를 마음껏 펼쳤다.

▼자고로 음주문화는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마실 만큼 자신이 따라 마신다. 바로 '자작(自酌)문화'다. 구리파에서는 잔을 서로 맞대고 부딪친다. 건배를 즐기는 '대작(對酌)문화'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술잔을 주고받기를 즐긴다. 바로 '수작(酬酌)문화'다. 지구촌에서는 수작문화권의 나라가 흔히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은 공손하게 술잔을 주고받는 수작문화에 익숙지 못해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수작문화의 연원은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 화랑들이 한술의 차를 나누어 마시며 공생공사를 다진 차례(茶禮)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 전쟁과 같이 목숨이 풍전등화적이었던 상황에 술잔을 주고받은 사기(史記)가 나와 피를 나누는 의식의 다름이 아님을 보여준다. 실제 전통사회에서는 관청에 대포(大砲)라는 큰 술잔을 비치해 날을 잡아 상하 차별 없이 술잔을 돌려 마시으로써 일심동체를 다졌던 풍습이 있었다.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부쩍 늘고 술집마다 "부어라 마셔라"가 지천이다. 직장인들 사이에 그 여진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되다 보니 얼마 전에는 '술잔 돌리기'가 도마에 오르더니 올해는 주당들 사이에 '폭소클럽(폭탄주 소탕 클럽)'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여러 가지 토속주의 머리글자를 갖다 붙인 새로운 스타일의 '섞어주'가 개발돼 과음을 부추긴다. 이름도 '백두산' '소백산맥' '설산주'에서부터 '천국의 눈물'까지 별나다. 연말연시의 술자리와 시장 선점을 위한 주류업계 경쟁과 현실도피의 소산이 아니기를 바라게 된다. <김길소 논설주간> E&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디지털 경제시대의 잡노마드

요즘 젊은이들을 일컬어 ‘N포세대’라고 한다. 어려운 경제·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과 내 집 마련, 결혼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다.

특히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정열을 쏟아부을 직장이 없다는 사실은 사회 새 출발을 하는 젊은 세대를 좌절케 만든다. 열등의식과 좌절감으로 심신이 피폐해지는 건 물론이고, 결혼이나 출산 등 다른 더 많은 인생의 선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건 불문가지다. 막판에 내몰린 젊은이가 결혼이나 출산 등을 포기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업과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는 연결고리가 거기에 있다고 해야겠다.

젊은 세대의 실업 문제 해결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된지는 오래됐다. 하지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해결책을 도출해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실업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생계 능력이 있는 인구 중 3분의 1 가량은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분의 2에 속하는 사람은 실직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다. 결국 ‘생계를 위한 노동’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하는 셈이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실직자가 속한 세계다. 실직자에는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즉 어린이와 학생,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직업이란 무엇일까’, ‘실업이란 영원히 해결 불가능할까’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직장’, ‘실직’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불과 200여 년 전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계를 위한 노동 = 직업’이라는 공식이 생기면서부터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상에선 기존에 알던 형태의 직업 모델이나 개념이 아닌 전혀 다른 형태의 직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래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머지않은 미래에 전통적인 형태의 직업들이 대다수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오스트리아의 철학 교수 출신인 프리트호프 베르크만은 ‘새로운 노동’의 등장을 얘기한다. ‘새로운 노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자동화로 인해 단순한 반복 작업이 사람의 손에서 기계로 옮겨갈 것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베르크만에 따르면 새로운 노동을 위해 사람들은 과거에 돈을 벌기 위해 투자했던 노동시간의 3분의 1만 바쳐도 충분하다.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독일의 저널리스트이자 미래학 전문가인 군돌라 엔리슈는 ‘잡노마드(Job Nomade)’ 사회의 도래를 주창한다. 그는 산업시대에 전형적이었던 직장(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하루 종일 일하는 계약 관계)이 사라질 것으로 본다. 평생 한 직장, 한 지역, 한 가지 업종에 매여 안정된 일과 월급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유목민처럼 민첩하고 가볍게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를 활보하는 ‘노마드(유목민)의 경제’가 실현될 것이란 주장이다. 무릎에는 노트북을, 호주머니에 스마트폰을, 귀에는 헤드셋을 착용한 채 인터넷과 이메일, 채팅을 통해 전 세계 어디라도 연락이 가능한 시대이기에 가능하다.

‘유동성’과 ‘유연성’이 특징인 정보사회와 지식사회에선 직업은 물론 개인적 성공을 위해 ‘속도의 문화’가 강조된다. 잡노마드 사회에선 직업을 자주 바꾸는 사람, 꾸준한 관계를 싫어하는 사람, 사이버 세계시민, 국가를 넘나드는 사람과 방랑자처럼 떠도는 기질을 지닌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유목민 형태의 기업은 안정된 구조를 지니지 않고, 스스로를 ‘문제 해결 네트워크’로 규정한다. 그때그때의 과제에 따라 끝없이 변하고, 리눅스의 경우처럼 완전히 해체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기도 한다. 시스코 같은 기업도 기업 구조나 운영 과정 등에서 유목민 경제의 새로운 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 직위나 창고를 두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파트너와 연계해 사업을 수행한다. 또 중간급의 간부 직원들을 두는 대신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정규직 직원과 책상 그리고 사무실의 수를 가능하면 줄인다. 노마드 경제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탈물질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롤러코스터를 타듯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의 국경이 무너지고, 수많은 회사들이 생겨났다가 금세 사라지곤 한다. 디지털 혁명이 실생활과 노동세계를 뒤흔들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시장과 지식 관련 플랫폼 및 커뮤니티가 생겨난다. 노동하는 시간과 장소도 해체되고 있다. 평생직장이라는 말도 사라져간다. 교육기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학교와 대학은 ‘교육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개조되고, 청소년과 성인들은 이런 교육기관을 방문해 개인이 원하는 취향이나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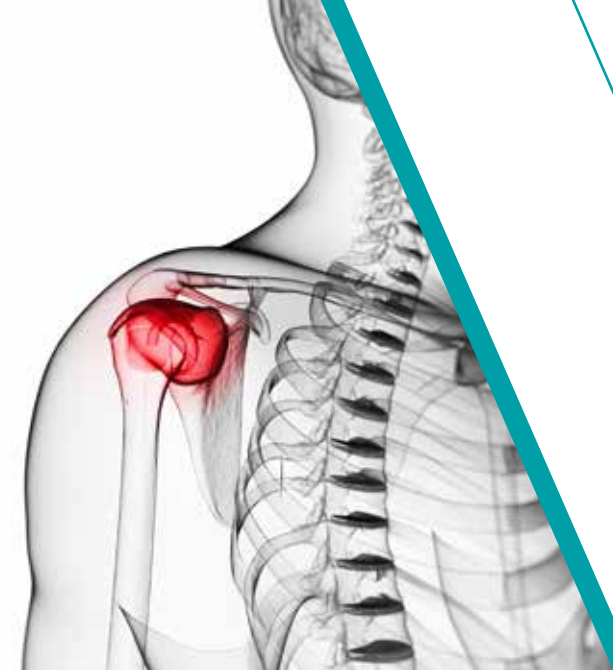
디지털 경제시대의 잡노마드는 일자리 패러다임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잡노마드는 평생 한 직장, 한 지역, 한 가지 업종에 매여 살지 않는다. 조직의 연공서열이나 상명하복 문화에 매몰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가치에 맞는 보상과 거래를 지

향한다. 실제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 일과 삶의 균형)’ 세대 직장인들의 퇴사 결정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보다 4.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첫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장인은 15.5%에 불과한 반면, 입사 2년 안에 퇴사하는 경우는 71.6%에 달했다.

정부는 초창기 스타트업이나 프리랜서, 1인 기업의 형태인 이들 잡노마드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스템 개방·공유, 객관적 가격산출과 정부의 사회경제적 지원(4대 보험, 기업손비처리 등)이 뒷받침되면 새로운 일거리 생태계를 조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입장에선 잡노마드의 활성화로 전문가 인력을 간접 고용하는 효과와 함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잡노마드에 맞는 ‘일거리’ 창출과 지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ES&C**

가을철 운동마니아 ‘어깨질환 주의보’

오십견·회전근개파열 환자 증가



요즘은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야외운동의 적기다.

하지만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할 경우 통증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주의해야 한다.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위가 ‘어깨’다. 대표적인 어깨질환으로는 ▲회전근개염 ▲회전근개파열 ▲어깨충돌증후군 ▲오십견 등을 꼽을 수 있다. 진단명은 각각 다르지만 원인이나 증상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다.

회전근개염은 어깨 사용 주요근육인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다. 회전근개는 극상근과 극하근·견갑하근·소원근 등 4개의 근육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 네 가지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복잡한 어깨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문제 없이 팔을 쓸 수 있다.

어깨관절은 움직임이 자유로운 만큼 불안정해 회전근개의 정상적인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어느 한 근육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근육으로 연달아 문제가 발생하며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을 넘어 심한 손상이 생기거나 끊어진 경우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한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깨충돌증후군은 어깨의 회전근개와 견봉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어깨를 움직일 때 관절 내 힘줄·인대·점액낭 등 구조물들이 서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손상되는 질환이다. **견봉하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 원인이다.** 회전근개나 전거근과 같은 근육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서 어깨관절이 어긋나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드물지만 선천적으로 견봉하 공간이 좁은 사람도 있다.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깨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 굳고 퇴행하면서 유발되며 능동·수동적인 어깨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힘줄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노년층에서 흔하다.

어깨통증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쉽게 구분되지는 않아 정확한 진단은 근육기능검사나 MRI, 초음파, 엑스레이 등을 통해 내려진다. 치료받아도 통증이 개선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도 적지않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깨통증은 팔의 과도한 사용보다 잘못된 자세로 체형이 변형되며 어깨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계속돼 생기는 것이 더욱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어깨통증환자의 자세를 보면 구부정하거나 어깨뼈가 앞으로 돌출된 경우가 많다.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면 어깨의 정상적인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고 이는 회전근개나 관절낭에 미세한 손상을 누적시키게 된다. 평소 무리하게 어깨를 쓰지 않았더라도 회전근개 힘줄이 끊어져 있거나 염증이 심하다면 잘못된 자세가 그 원인일 수 있다. 어깨통증은 근육 기능저하 및 어깨 움직임의 비정상적인 패턴이 굳어지면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음 통증을 느꼈을 때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것으로 생각하고 가벼이 넘기기 마련이다. 초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통증이 사라져 방치하기 쉽다.

통증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미 어깨구조와 기능의 문제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반드시 가까운 의료진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에 나서야 통증이 만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어깨통증 환자는 단순 통증 개선뿐 아니라 자세 및 체형의 문제까지 고려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어깨통증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증을 해결하려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어깨움직임을 정상화해 바른 자세로 되돌리는 체형교정 등을 병행하는 근본치료가 도움이 된다. **E&C**

인천 송도 IPCC 총회, 지구 기온 상승 1.5도로 억제하자



2018년 10월 6일 인천 송도에서 이레에 걸쳐 개최된 제48회 IPCC 총회(국제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 인사 간 총회,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막이 내렸다. IPCC는 6일 가맹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통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전 세계가 협심하여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파리 협정은 21세기가 끝날 때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2도 이하로 아주 낮게 유지할 것, 가능하다면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각국은 가능한 조치를 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 1.5도는 어디까지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남쪽 태평양의 섬나라와 각국 해안 근간 평지 근처의 해수면은 50cm 이상 상승할 것이며 2도 이상 상승한다면 이보다 10cm 더 높은 60cm 상승을 달성한다. 이 정도 수준이면 해당 지역에서 최대 100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발생하리라 예측된다.

거우 0.5도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0.5도 차이가 지금까지 쌓아 온 지구 위 생명체의 다양성, 생태계 시스템,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파급적 수준이다.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억제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IPCC의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최대한 빠르게 시작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계획 성공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어도 지금의 45%로 줄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인간의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0%인 넷제로(Net-Zero)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넷제로” 시대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기술, 나무 심기, 재생 숲 조성, 토지회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두 가지 노력이 합쳐져 최대의 성과를 낼 때 비로소 온실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사진 1.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요청했다. (출처: 기상청)

상승 기온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의 상한은 4200억 톤 ~ 5800억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2010년 인류는 한해 42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그 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승 폭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2038년에서 2058년 사이에는 위의 배출 한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2.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은 현실이다. 이제 우리 손으로 지구를 다시 살려야 할 때다.



이산화탄소는 물론 그 외의 다른 온실가스도 무시할 수 없다. 메탄, 아산화질소, 하이드로 플루오린 카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목표 달성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동시에 에너지 낭비의 단절, 화학연료에 기대지 않는 전력 생산,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 증대 등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여 있다.

IPCC 보고서는 1.5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에 연간 약 2조 4천억 달러(한화 2600조 원)의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세계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한다면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정책, 기술 혁신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목표 의식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표치 도달은 요원해 보인다. 매우 강한 추진력과 높은 공동체 의식만이 우리를 지구온난화의 재앙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세계 각국이 노력해야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하나가 되어 이 문제에 맞서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파리 협약 이탈, 호주의 이산화탄소 감쇄 포기 등 부정적인 사건들이 쌓이며 세계적 단결까지는 아직 그 길이 요원해 보인다. 온난화에 대한 각국의 의식 수준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차근차근 봉합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우리나라도 더는 지구온난화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서가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고 11월 초부터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올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 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율을 낮추는 대신 현재 전력 생산량 중 7%에 불과한 재생 에너지 이용 비율을 2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탈원전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지만,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국가라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번 인천 송도 IPCC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C**

Culture

Festival

보성차밭빛축제 2019

기 간 : 12월 14일 ~ 2019년 1월 13일 장 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75



보성, 이 땅이 보성군이라 불린지 2019년이면 천년을 맞이한다.

그 장엄한 천년을 기리기 위하여 올해 '제16회 보성차밭 빛 축제'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 서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화합의 축제를 개최한다. 한국차문화공원에는 차밭 빛 물걸, 은하수 터널, 빛 산책로, 디지털 차 나무, 차밭 파사드 등 아름다운 빛 조형물로 겨울밤을 장식할 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는 파이어 판타지, 가든 판타지와 같은 화려한 빛과 불의 공연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또한, 소망카드 달기와 문화장터 등의 상설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따뜻한 겨울 밤을 즐길 수 있다.

<http://www.boseong.go.kr>

Exhibition

이미진 _ 존 레논 展

기 간 : ~ 2019년 3월 10일 장 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세계적인 평화의 노래 'Imagine(이미진)'의 작곡가이자 20세기 최고의 밴드 비틀즈 리더 존 레논의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한 아시아 최초, 최대 규모의 단독 전시이다.

존 레논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이번 전시는 30년 이상 존 레논의 작품과 유품을 수집해온 Micheal-Andreas Wahle의 소장품, 존 레논의 전속 사진작가 Bob Gruen, Allan Tannenbaum의 사진 작품으로 구성된 총 400여점이 전시되며 존의 아내인 전위예술가 요코 오노와 함께 세상에 전달한 'BED-IN' 'WAR IS OVER' 등의 평화 퍼포먼서를 그대로 재연하여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아티스트 존 레논의 짧지만 반대했던 삶을 음악, 예술 그리고 사랑으로 풀어내어 그의 궁극적인 평화의 메시지와 발자취를 따르는 음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전시가 열린다.

<https://imaginejohnlennon.modoo.at>



Book

골든아워 1 : 생과 사의 경계, 중증외상센터의 기록 2002-2013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단 한 생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분투

외상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가 놀려쓴 삶과 죽음의 기록이다. 저자는 17년간 외상외과 의사로서 맞닥뜨린 냉혹한 현실, 고뇌와 사색,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의식 등을 기록해 왔다.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적어 내려간 글은 그동안 '이국종 비망록'으로 일부 언론에 알려졌다. 그 기록이 오랜 시간 같고 다듬어져 두 권의 책(1권 2002-2013, 2권 2013-2018)으로 출간됐다. 이국종 교수의 『골든아워』는 대한민국 중증외상 의료 현실에 대한 냉정한 보고서이자,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려 애써온 사람들-의료진, 소방대원, 군인 등의 분투를 날 것 그대로 담아낸 역사적 기록이다.

이국종 저 | 흐름출판



Movie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브,

대부 '드로셀마이어'의 파티에 참석한 '클라라'는

돌아가신 엄마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을 열어줄 황금 열쇠를 찾아 나선다. 대부에게 건네받은 황금실을 따라 마법의 세상 속으로 들어간 '클라라'는 호두까기 병정과 함께 3개의 왕국을 지나면서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 환상적인 모험을 즐긴다.

그러나 엄마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네 번째 왕국으로 가야만 하는데...

황금 열쇠를 따라가면, 지금껏 본 적 없는 마법의 세계가 열린다!

상영중



KEPCO E&C N e w s

● 2018년도 제8차 이사회 개최

2018년도 제8차 이사회가 지난 10월 30일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배수 사장을 비롯하여 감사,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등 총 9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제3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주주명부 폐쇄(안),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및 중장기 경영목표(안)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보고안건으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체결 보고가 상정되어 원안 접수되었다.

● Quality Day 행사 개최

회사는 협력업체를 초청해 '동반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Quality Day' 행사를 지난 10월 17일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통합하여 협력업체와 함께 설계품질·안전 인식 제고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변화운 에너지신사업본부장을 비롯한 41개 협력업체 경영진과 품질책임자, 주요 직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초청 강연 △협력업체 등록, 평가 및 유지관리 현황 △협력업체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 △부적합사항의 보고제도와 체계 △안전문화 활동 및 동향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한국품질경영학회장인 김연성 인하대 교수는 '품질 4.0 시대의 성공조건'이라는 주제로 "품질 4.0은 품질경영의 사람중심 디지털화, 능동적 품질, 데이터의 비즈니스화, 고객 입장에서 최적화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화운 에너지신사업본부장은 "품질과 안전문화의 내실화 및 협력사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 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내자"며,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협력사의 품질수준 확보가 필수적이며, 품질과 안전문화 수준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8년 하반기 발전그룹 CTO 정례회의 개최

2018년 하반기 발전그룹 CTO 정례회의가 발전그룹 5사 CTO와 변화운 에너지신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5일 우리 회사 경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례회의는 참여사 간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는 △회사소개 △국내 화력발전소 내진성능 평가 발표 △발전설비 기자재 품질 확보를 위한 구매 계약 조건강화 방안 발표 △최근 이슈사항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회사는 국내 화력발전소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내진관련 법령 및 기준, 내진성능 평가 방안 및 추진사례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한국동서발전에서는 발전소 고장원인 분석결과 및 사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매계약 조건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환경문제 개선 등에 대하여 참여사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유대관계 강화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속적 협력하기로 하였다.



● SAREX 사용자그룹 회의 개최

SAREX 사용자그룹 회의가 지난 9월 13과 14일 양일간 로제니아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우리 회사가 개발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PSA :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소프트웨어인 SAREX(Safety and Reliability Evaluation eXpert) 구매 기관들이 신규 기능, 소프트웨어 개발방향, PSA 기술 현안 등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7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개최된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회원사인 미래와 도전, 액트, 뉴클리어엔지니어링과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나와에너지(Nawah Energy Company) 등 총 10개 기관 50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SAREX 소프트웨어의 신규 기능 설명, 외부 전문가 강연, 개발 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한 발표를 비롯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청취, SAREX 활용 방안 및 PSA 기술현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PSA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SAREX 활용 방안에 대한 토의에 관련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 2018년도 기술전문교육 성숙 및 고도과정 실시

2018년도 기술전문교육 성숙 및 고도과정이 지난 9월 11일 인재개발교육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2018년 10월 24일까지 총 16일간 입사 5~10년차 기술직 및 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총 78개 교과목이 19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기술전문교육은 연관분야의 문제사례를 숙지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별 조건에 대한 해결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독자적인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회사는 이번 교육이 분야별 전문가간 의견 및 정보 교환을 통해 업무효율성 확대와 분야별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다양한 상황에서 각 분야별 독자적 해결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지역 특산품 홍보·시식 행사

회사는 김천지역 특산품인 샤인머스켓 시식 및 판촉행사를 지난 11월 7일 개최하였다.

샤인머스켓은 김천에서 전국 최초로 재배한 포도 품종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에 성공한 지역의 대표 특산물이다. 행사에는 김충섭 김천시장, 엄호섭 경영관리본부장, 변화운 에너지신사업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시식용 샤인머스켓을 직접 나누어 주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에 항상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에 감사한다"며, "김천시의 자랑인 샤인머스켓을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맛볼 수 있도록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시식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샤인머스켓을 처음 맛보았는데 달콤한 맛이 강해 젊은 직원들의 입맛에 딱 맞다"고 말하여 이번 행사에 큰 호응을 보였다. 회사는 앞으로도 지역 상생구매, 명절 맞이 직거래 장터 등 상생협력 활동으로 임직원에게 김천우수 농산물을 소개하는 기회들을 다양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투명한 회계처리

직원은 회계기록과 기타 재무관리를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투명한 회계처리



투명한 회계처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투명한 회계처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 관련 국내 법령

- 국가재정법(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 상법(감사임원 및 주주총회 등에 대하여 포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회계처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부가가치세법(매출 행위)
- 법인세법(법인 소득)
- 소득세법(소득 행위)

회계 관련 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각 회계연도 결산 지침
- 회계규정(사규)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한기테니스회(KTC)



한기테니스회(KTC)는 지난 10월 9일 '2018년도 KEPCO-E&C 추계테니스대회를 김천사옥 테니스 코트에서 개최하였다.

직원간의 단합 및 친목도모를 위한 이번 대회에는 직원 및 직원 가족을 포함, 김천사옥으로 이전한 이후 최대 인원인 41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회원 간에 기량을 겨루었다. 참가자들의 실력스펙트럼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4개조(왕중왕부, 오픈부, 신인부, 개나리부)로 편성하였고, 특히 개나리부에는 김천사옥으로 이전한 후 테니스를 시작한 회원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한기가족분들도 많이 참석하여 대회를 빛내 주셨다. 게임 운영방식은 지난해부터 도입하여 호응이 좋았던 KDK방식(한울방식)을 적용하여 게임마다 파트너가 바뀌도록 하였다. 개인별로 4게임을 한 뒤, 게임의 승패와 상관없이 게임 득실차를 계산하여 입상자들을 결정하였다.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결과, 각 조에서 다음과 같은 입상자들이 결정되어 다른 참가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구분	왕중왕부	오픈부	신인부	개나리부
1위	김용기 부장	배봉재 부장	이효승 부장	박초원 사원
2위	박상현 부장	서한명 부장	이은숙 님 (염계선 부장 배우자)	이선기 사원
3위	염계선 부장	조덕제 차장	류민광 부장	김동근 대리
4위	김진국 처장	이완호 처장	최익현 부장	김현주 차장



사우 애경사



결혼

- ▶ 원자로)사업책임자실 이병철 처장 자녀 : 11월 3일 노블발렌티
- ▶ 원자력)기계기술그룹 최민국 대리 :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
- ▶ 신사업)환경기술그룹 김보경 대리 :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
- ▶ 원자력)기계기술그룹 김재현 대리 : 11월 10일 광주 라봉웨딩홀
- ▶ 원자로)안전해석그룹 민지홍 대리 : 11월 17일 대전 호텔CC
- ▶ 원자로)계측제어설계그룹 정길영 차장 : 11월 17일 대전 더 오페라웨딩홀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윤창규 대리 : 11월 17일 아산 CA웨딩홀
- ▶ 원자로)사업개발처 최정대 과장 : 11월 17일 더 라빌
- ▶ 원자력기술그룹 김철수 대리 : 11월 18일 대구 노비아갈라
- ▶ 원전O&M사업그룹 고성규 부장 자녀 : 11월 24일 이비스엠베서더 수원
- ▶ 원자로)기계설계그룹 장용태 대리 : 11월 24일 부산 아레나웨딩홀
- ▶ 원자로)유체계통설계그룹 김희영 사원 : 11월 25일 대전 더케이웨딩홀

부음

- ▶ 경영지원처 최장권 부장 장인상 : 10월 9일 목포 삼목장례식장
- ▶ 신사업)전기계측기술그룹 권혁진 부장 장모상 : 10월 12일 오산장례식장
- ▶ 원자력)사업관리기술그룹 안재준 부장 장모상 : 10월 13일 안양장례식장
-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김준곤 부장 장인상 : 10월 16일 분당재생병원
- ▶ 기획처 장일수 부장 부친상 : 10월 17일 서울국립중앙의료원
- ▶ 미래기술연구소 김대복 부장 부친상 : 10월 23일 성남시장례식장
- ▶ 혁신성장전략실 정상인 부장 모친상 : 10월 28일 천안의료원
- ▶ 재료기술그룹 양윤영 부장 부친상 : 10월 3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신사업관리실 최미순 대리 시부상 : 10월 30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원자력)계측제어기술그룹 이성희 부장 장인상 : 10월 30일 인천 길병원

동우회 동정

2018 추계 명승지 탐방행사 개최

한전기술동우회는 지난 10월 23일 2018 추계 명승지 탐방행사로 강원도 원주 소재 한지역사실 관람과 소금산 출렁다리 등을 다녀왔다.

결혼

전용주 회원 자녀 : 10월 13일 아مان티 호텔
안재열 회원 자녀 : 10월 21일 플로팅아일랜드
박남수 회원 자녀 : 10월 27일 명품웨딩프로포즈 구로
오치석 회원 자녀 : 10월 27일 헤리츠

부음

천봉학 회원 모친상 : 10월 9일 동수원병원
구형주 회원 모친상 : 10월 15일 수원시연화장
김정희 회원 모친상 : 10월 16일 목포 현대병원



전동킥보드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은 전 제품 문제없어

— 1회 충전 주행거리, 충전시간, 가격 등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의 관심 증가와 근거리 이동의 편리함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하나인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 주로 전기를 동력(전기모터)으로 하여 1인 사용자가 이용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통수단이며, 전동킥보드 및 전동휠 등이 해당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6개 브랜드 6종 제품을 대상으로 최고속도, 주행거리, 등판성능, 내구성, 제동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 주요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6개 제품 모두 최고속도, 배터리 등 안전에 문제가 없었으며, 1회 충전 후 주행거리에서는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행 최고속도는 전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고, 주행거리, 충전시간에서는 제품 간 차이 있어 구입 시 고려 필요

▶(최고속도) 제품별 주행 최고속도는 21km/h ~ 25km/h 수준으로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 전동킥보드는 안전을 위해 주행 최고속도를 25 km/h로 제한하고 있음.

▶(주행거리) 1회 충전 후 주행거리*는 미니모터스(스피드웨이 미니4) 제품이 65km로 6개 제품 중 가장 멀리 이동할 수 있었고, 나인봇(ES2) 제품의 주행거리는 17km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를 보였다.

* 체중 75 kg 사용자가 최고속도로 평지를 주행하는 조건에서 주행시험기로 측정한 거리임.

▶(충전시간) 전동킥보드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까지 배터리를 방전한 후 충전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을

확인한 결과, 약 4시간 ~ 8시간 수준으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 등판성능, 내구성 등 주요 품질에서 전 제품 이상 없어

▶(등판성능) 경사로를 오를 수 있는지 등판성능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기준인 10도 경사로를 오를 수 있어 이상이 없었다.

▶(내구성) 전동킥보드 주요 장치(핸들, 바퀴 등)에 대한 하중시험 및 물에 의한 방수성능, 특정 환경(저온, 고온 등)에 대한 노출 시험에서 전 제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성은 전 제품 기준에 적합

▶(제동성능) 주행속도 16km/h에서 브레이크 동작 시 제동거리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 5m 이하로 정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했고, 미끄러짐 등에 의한 전복은 발생하지 않아 주행안정성에 이상이 없었다.

▶(전기적 안전성) 절연미흡에 의한 전기누설 및 배터리* 등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터리 과충전, 충격, 진동 등에 의한 발화·폭발 등이 발생하는지 시험

■ 무게, 보유기능 등에서 제품 간 차이 있고, 일부 제품 표시사항 부적합해 개선 필요

▶(무게·보유기능) 무게는 샤오미(M365), 나인봇(ES2) 제품이 12.3kg으로 가장 가벼웠고, 미니모터스(스피드웨이 미니4) 제품이 16.6kg으로 가장 무거웠으며, 주행 및 사용편의 관련 보유기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 정속주행, 서스펜션, 애플리케이션(App) 연동 등

▶(표시사항) 나인봇(ES2) 제품*이 안전확인신고번호 등 제품정보를 일부 누락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인봇 판매업체인 ㈜아이휠의 표시사항 부적사항은 관계기관(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함. 향후 나인봇(ES2) 제품의 유통을 총괄할 예정인 세그웨이서울(주)는 한국소비자원에 앞으로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알렸음.

전동킥보드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전동킥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 주행 전 사용설명서를 읽고,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각종 레버의 고정여부를 확인하고 주행한다.
- ▶ 주행 시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 주행 및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주행한다.
- ▶ 젖은 노면 등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행을 하지 않는다.
- ▶ 눈, 비가 올 때에는 가급적 주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주행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주행을 멈추고 실내로 이동한다.
- ▶ 과도한 경사로에 대한 주행은 피해야 하며,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하여 저속으로 안전하게 주행한다.
- ▶ 급출발, 급제동은 피해야 하며, 주행 시 장애물(턱, 구덩이 등)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주행한다.
- ▶ 사용상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말아야 한다.
- ▶ 가급적 주간에만 사용하며, 부득이 야간 주행을 할 경우 라이트를 켜고 저속으로 주행한다.

〈배터리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 ▶ 배터리 충전 시에는 반드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한다.
- ▶ 배터리는 고온에 노출되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분리하여 과충전이 되지 않게 한다.
- ▶ 충전기 및 배터리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않는다.
- ▶ 배터리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 배터리의 수명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충전하여 보관한다.

E&C

작은 위로

Writer 김 교 상 원자로설계개발단 사업관리실 부장

진눈깨비 흩날리는 저물녘
 성에 꽃핀 유리문 밀고 들어서는 시린 바람
 굽은 어깨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는다
 가늘게 떨리는 곱은 손
 한 사발의 막걸리에
 푸르스름한 지지리 궁상 털어 넣는다
 뿌우연 입김 피어오르는
 얼큰 시원한 육개장 한 그릇
 웅숭그린 가슴팍 열어젖힌다
 ‘어서 들게, 이 사람아’
 오래 끓여 걸쭉한 국물 한 숟가락에
 바다부터 화르르 달아오르는 식욕
 혀끝에 착착 감기는 고슬한 밥 퍼 올린다
 맛의 여유 즐기던 붉은 입술
 고맙고, 고맙다고, 고마웠다고.

12월입니다

온기가 많이 그리워지는 계절. 겨울, 12월입니다
 아직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은 나와 의 약속들을
 하나씩 주섬주섬 챙겨 늘어 놓고 보니...
 참으로 많은 일과 부단한 노력을 해 온 나를 돌아 봅니다
 덜한 것은 토닥토닥 잘한 것은 쓰담쓰담 해주는
 넉넉하고 여유있고 따뜻함이 있는...
 그리고 아마 좀 더 힘들지 모를 내년을 기대하는...
 그런.....12월입니다

글 · 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